



전통문화예술 발굴, 육성 지원

1일 사단법인 '가촌' 창립 기념식

전통 문화예술육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가촌(이사장 정행웅)이 지난 1일 오후 5시 학교법인 유은학원 다목적강당에서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사단법인 가촌은 학교법인 유은학원 전 이사장인 고 가촌 최환석 선생이 생전에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졌던 뜻을 받든 것으로 2007년 5월부터 6개월동안 설립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5일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었다.

정행웅 이사장은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때"라면서 "전통문화예술의 창작과 연구활동 지원,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사업,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가촌은 창립 첫해인 올해에는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기로 정하고 회원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1억 3천여만원의 기금도 학교법인 유은학원 교직원과 동문을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지원 미술단체에

'광선화우회' 등 4곳 선정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본관의 '2008년 미술단체 초대 공모'에 '광선화우회' '우리민족문화예술연구소' '청동화' '퓨전(FUSION)' 등 4곳이 선정됐다.

'광선화우회'는 원로 서양화가 김영태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작가가 활동하는 그룹. 이들은 지난해 일본 샌다이에서 열었던 한-일작가 교류전을 통해 금남로 본관에서 열 예정이며, 광주시립미술관은 장소와 전시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대원 교수(조선대 미술대학) 등이 활동하는 수목화 그룹 '우리민족문화예술연구소' 회원 30여명도 단체전과 세미나 등을 금남로 본관에서 열게 됐다. 30년 넘게 활동해 온 서양화 단체 '청동화'도 최근 가입한 젊은 작가들 중심의 주제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을 하는 '퓨전(FUSION)'도 단체전을 계획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토지문화관, 문화예술인들에 창작실 지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토지문화관은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 공간을 지원한다.

문학, 연극 등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 가운데 신청을 받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토지문화관 창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짧게는 1개월 미만, 길게는 4개월까지 창작실에 머무를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tojicul.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33-766-5544.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 첫 직장인 극단 '드라마틱 라이프'

“스트레스 훌훌... 행복을 연기해요”

지난달 30일 광주시 북구 풍향동 극단 '연인'의 연습실에서는 극단 'DL(Dramatic Life)' 단원들이 몸 풀기 등 기본 훈련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DL은 광주에 처음 등장한 직장인 극단으로 올초 창단 공연도 가졌다.

1주일 전 신입 단원으로 가입한 공진구(31)씨 역시 조금은 쑥스러웠던 듯 연습에 열중이었다. 공 씨는 공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으로 같은 부대원 박원일(23)씨가 가져다 준 DL 창단 공연 팸플릿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다. 공 씨는 "연극 무대는 보통 사람들이 접하기 어렵는데 후배가 공연까지 하는 걸 보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직장 동료들과 사내 연극 동아리를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 극단을 꾸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DL은 지난해 초 극단 연인 대표 김종필(37)씨가 인터넷에 공고를 내면서 첫발을 내딛었다.

첫 모임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는 교회 연극 무대에 섰던 기억을 갖고 있거나 중·고등학교 시절 연극반을 기웃거리던 이도 있었다. 물론, 무작정 연기를 하고 싶다는 완전 초보자도 있었다.

현재 단원은 모두 10명. 대학원생 박정민(32)씨, 회사원 최주현(27), 양선희(31), 박원주(31)씨, 선생님인 윤혜정(30), 김보영(25)씨, 학원 강사인 김미경(25)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극단 결성 후 단원들은 일주일에 한 차례씩 연습을 해왔고 올 초에는 날 사이먼의 '굿 닥터'로 창단 공연



광주에 처음 등장한 직장인 극단 'DL(Dramatic Life)' 단원들은 연극은 직장생활의 활력소이자 또 다른 도전이라고 말한다. 올 초 광주 공동 예술극장에서 열렸던 창단공연 '굿 닥터' 모습.

군인·교사·회사원 등 10명으로 결성돼

년 2회 공연 목표 매주 수요일 '구슬땀'

도 가졌다. 발성 연습부터 시작해 대사 외우기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 무대에 올랐을 때는 기본은 '뽀뽀함'과 '성취감' 그 자체였다.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땐 많이 아나도 안보였죠. 대사를 통째로 빼먹은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눈치 채지 못했더니깐요.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기회가 없었죠. 이번엔 소원성취한 거예요."(박정민)

"가족들이 다 왔었는데 아껴서서 '우리 딸이 멋진 일을 했잖나'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가끔 집에서 연

기를 해보라고 하시기도 하구요."(최주현)

"요즘엔 드라마를 볼 때 즐기던 것보다 배우들의 표정이나 몸짓 연기, 이런 데 더 관심이 간다니까요.(웃음)"(박원일)

중학교 국어교사로 연극반을 맡게 되면서 극단에 참여하게 된 김보영씨는 "연극을 하는 게 직장 생활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새롭고 설레는 도전"이라고 말했다.

단원들은 연습과 달리 '진짜' 무대에 서고 나니, 호흡과 발성, 신체 훈련 등 '기초'의 중요성을 느꼈다.

"다음에는 진짜 잘해 보자"는 의욕도 넘쳐 올해부터 매년 두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로 하고 차기 공연작을 모색중이다.

"연극을 하고 싶어 일반 극단에 들어가 볼까 생각도 여러번 했는데 직장생활과 극단 생활을 병행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직장인 극단은 사회 생활을 배려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아요."(최주현)

김종필 씨는 "직장 생활과 극단 활동을 병행하다 힘들어 직장을 그만 두면 경향이 있어 연극의 꿈을 갖고 있는 직장인들만으로 극단을 만들고 싶었다"며 "DL이 스스로 자립해, 단순한 동호회 성격을 넘어 직접 공연을 무대에 올려 가면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cafe.daum.net/ DramaticLife. 010-5171-5613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남북 공동편찬 '역사 용어사전' 나온다

임진왜란·독립협회 등 집대성

남북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임진왜란', '독립협회', '3.1운동' 등 역사용어를 집대성한 역사 용어사전이 올해 나온다.

남북역사학자협회 서종석(60·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남측위원장등 3일 "북한 사회

과학원 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역사 용어를 연구해 사전 형태로 펴내기로 지난해 합의했다"며 "분단 이후 남북 역사학계가 함께 한반도의 역사 용어를 집대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남측 역사학자 30여명과 북측 학자 20여명이 참가해 지난해 11월 시작하

던 공동연구 결과는 오는 12월께 '남북역사용어사전(가칭)'으로 출간된다.

남북 학자들은 사전에 올릴 역사 용어 200여개와 인물 100여명을 선정, 집필에 나섰으며, 10월말까지 각각 연구한 내용을 합쳐 원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역사용어사전은 고조선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역사적 사건을 용어와 인물 위주로 총 3권에 담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cinema featuring various movie listings and theater information. It includes sections for '메가박스', '엔터 시네마', '콜롬버스 시네마', '씨너스 전대', '무등극장', and '제일 시네마'. Each section lists movie titles, showtimes, and prices. The 'Happy Time' logo is prominently displayed at the top.